

한 생각 돌리고 나니 ⑤

주부신행담



운주시 부처님

전남 화순의 운주사 천불천탑골.

글짜기 가득 탑과 부처님이 모셔진 그곳은 영인한 해탈의 세상을 열망하는 여느 사람들과 마음이 가득한 곳이다.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천불천탑골이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비애를 느낀다. 한량 없는 지비의 나라

는 영인한 아들 수 없는 상상의 소산에 불과한 것인가.

아닐 것이다. 이 천불천탑골에서 나는 비록의 세상은 분명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런 가작없이 살아가는 세계로 표현되고 있다. 그 천진난만의 세계 앞에서 나는

매번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여느 사람들과 마음이 가득한 곳이다.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천불천탑골이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비애를 느낀다. 한량 없는 지비의 나라

는 영인한 아들 수 없는 상상의 소산에 불과한 것인가.

아닐 것이다. 이 천불천탑골에서 나는 비록의 세상은 분명

우리 사는 곳이 용화세계임을...

히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곳 만큼 인간의 바른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곳도 없을 것이다. 운주사의 천불은 모습이 다양하다. 웃고, 울고, 아귀잡고, 어른스럽고, 얌이 있고, 누워있고 서있고... 모두가 우리 사는 세상 그대로이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부처님의 얼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은 꿈 속의 용화세계가 아니라 현재의 미륵세계인 것이다. 그것도 매우 존스러움과 통박스런 모습의 부처님과 이그러진 삶의 인간이 아무

필수히 느낀다. 날려 보내야 한다. 무상한 이 세상의 모든 짐작을 저 멀리 날려 보내고 통박스런 진실 하나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운주사의 천불천탑은 이 도리를 소리없는 외침으로 전해준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멋있고 이그러진 부처님들이 쏟아내는 사자후를, 눈을 뜬 사람은 볼 것이다. 비록의 세상이 바로 우리는 이 세상임을. 그래서 무엇이 바른 삶의 모습인가를 알아 실천할 것이다. 노동식 (동양회기)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다보면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나거나 예기치 않은 좋은 기회를 만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재앙은 피하고 싶고 좋은 기회는 많았으면 하는 것이 인자상정이지만 좋은 기회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라는 것이 아닐까.

내가 불법과 인연을 맺은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그야말로 뜻하지 않은 것이었다.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의 내용을 구태여 빌리지 않더라도 나는 내 삶의 의욕과 가치를 상실하고 의무감과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한 채 수많은 나날을 허비해야 했다.

남편과 자식과의 갈등, 이런 것은 누구나 겪고 있는 사소한 문제이고 주부로서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면 항변할 방법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 감성이 지나치게 예민해 작은 부분을 크게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치부하기에는 내 자신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남편의 지난 독선과 내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생기는 총독만남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멀리했다. 또 내 욕심껏 따라 주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과 자식과 부모간에 있어서는 안 될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하는 요인이었다.

급기야 이런 생활속의 흥분과 권태로움은 내 자신을 향한 자성의 활자위를 수없이 담겨 만들었으나 그럼만큼 더더욱 비참한 내 자신의 모습이 확인될 뿐 아무런 소득없는 나날들만 이어졌다.

탈출하고 싶었다.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아픔

다들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회의감이 일기 시작했다. 체념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내 삶이 너무도 아깝고 소중한 것이었기에 차마 무감각한 생각으로 내 삶의 끈을 자버릴 수는 없었다.

갈등과 혼돈이 여지없이 반복되면 어느날 오히려, 무기력한 내 생활을 이는지 모르는지 가까운 친지가 나를 방문했다. 남편 얘기며 자식 얘기며 온통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며 자신의 주변

변 지평만을 늘어놓는 친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는 이런저런 얘기 끝에 결국 내게 한 권의 책을 내놓았다. 얼핏 눈에 들어 오는 책 제목이 눈에 띄었다. '불'라는 제목으로 대영스님의 말씀을 담았다는 책이었다.

도대체 왜 내게 이 책을 내놓은 걸까? 무슨 책인지 궁금하기보다는 그 책을 내놓은 친지의 의도가 더욱 궁금했기에 책에 대한 호기심이 한층 나를 자극했다.

왜 이제야 이런 도리를 만나게 되었을까 그렇게 무기력했던 내게 힘이 솟아 오르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책 한권 때문이었다



친지는 대문을 나서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도 읽어봤는데 정말 읽기를 잘했다는 느낌이 들어 가져왔어요. 생활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인사도 깜박 잊은채 책을 먼저 펴 읽어보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와서 책을 읽어 들었다. 차근

차근 읽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잡힐것만 같은 느낌이 든 건 내 생활의 위기감과 그것을 해결해 줄만한 그 무엇인가를 기대해 온 심리적 상태감으로 인한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밤을 밝히며 읽어 내려가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대했던 그 무엇인가가 잡힐 것만 같은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처럼 가슴설레고 그 무엇을 기다린 적이 없었던가!

눈물이 솟았다. 그건 슬퍼서도 기뻐서도 아니었다. 아니 둘 다였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무엇을 잘못 행동해왔는지... 지난날의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사람이 한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항상 다른 사람을 원망해 오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다는 건 지금 쓰고 있는 글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신의 잘못을 뒤우친 내 스스로의 대견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던 건 어떻게 책 한권으로 인해 내 자신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더욱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러나 짧은 내 식견으로는 스님의 글 내용만이 가슴에 와 닿을 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도리어 왜 이제야 이런 도리를 만나게 되었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일었다면 지난번 묵심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무기력했던 내게 힘이 솟아 오르기 시작한 건 어쩌면 바로 그 책 한 권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선왕을 나게 되었다. 도대체 어떤 힘이 그 스님에게 있는 것일까? 오계민 (서울 중계동)

◆ 'My mind is obedient, delivered from all worldliness,' -so said Bhagavat, 'it has for a long time been highly cultivated and well-subdued, there is no longer anything wicked in me: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내 마음은 고분고분하고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해방되어 있다. 스승 다니아가 말했다. 나의 아이들은 내 주위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그들에 관한 어떤 나쁜 이야기도 듣지 못하

바를 내리라, 오 하늘이여!

◆ 'I support myself by my own earnings,'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and my children are all about me, healthy, I hear nothing wicked of them: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나는 내가 밭에서 살아가고, 목동 다니아가 말했다. 나의 아이들은 내 주위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그들에 관한 어떤 나쁜 이야기도 듣지 못하

니, 흙이시다면 비를 내리소서, 오 하늘이여!

◆ 'I am no one's servant' -so said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다나파타 ⑤
Bhagavat, 'with what I have gained I wander about in all the world, there is no need for me to serve: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스승(부처님)이 말했다. 나는 그 누구의 고용인도 아니다. 스스로 얻은 것에 의해 온 세상을 거니노라. 남에게 고용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하늘이여 좋다면 비를 내리소서.

◆ 'I have cows, I have calves,'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I have cows in calf and heifers, and I have also a bull as lord over the cows: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갖 태어난 송아지도 있고 젖을 뜰 수 있는 암소도 있다. 목동 다니아가 말했다. 새끼 된 어미소도 있고 발정기의 암소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들의 짝인 황소도 있으니 하늘이여 좋다면 비를 내리소서.

'subdue' 부드럽게(온화하게) 하다
'wicked' 부도덕한, 부정한
한영무 기자

“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

GRAND FANTASIA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 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결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폭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저가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에 포커스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가격 시스템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으며, 수명이 25년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10년 내 전은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꿈의 나라를 떠나 그랜드침대

본사: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 267-18
전화: (02)308-1818-9, 303-7376, 372-7941

세계와의 승부- 1위 회사의 사명입니다

누군가는 해내야 할 증권의 세계화, 세계와의 경쟁- 국내 NO.1의 사명감과 저력으로 대우증권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계 최대의 해외 영업망과 정보망을 구축한 대우증권- 고객과 더불어 세계의 큰 산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대우증권
대우경제연구소
대우투자자문